

## 한전 전남지사 사회봉사단,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놀이터 선물

**“우와~ 우리에게도 놀이터가 생겼어요”**

지난 16일, 광주 소태동에 위치한 대한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소의 아이들은 예쁜 놀이터를 선물 받았다. 한국전력 전남지사 사회봉사단은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60명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700만원을 기부해 놀이터를 자여준 것.

놀이터에서 떠날줄 모르던 강호(4)는 놀이터를 보자마자 “우아~”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강호야, 놀이터 알미만큼 좋아?”라는 질문에 양팔을 한껏 벌려 보인다. 이날 만큼은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 자원봉사 식구들의 얼굴에 힘박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김새봄(29)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닥도 쪽진한 소재이고, 지붕도 있어 언제든지 마음껏 놀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했다.

**‘사회봉사도 업무중 하나’ 3년째 활동**

**꾸준한 후원과 관심…유아용품 기증도**



한전사회봉사단과 대한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소 가족들이 ‘한빛 놀이터’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대한사회복지회 제공>

할 경우 이름을 지어준 사람을 찾을 수도 있다.

한전사회봉사단 직원들은 아이들 이름 짓는 것이 내 아이 이름 짓는 것 보다 어렵다고 애정어린 불평을 털어놓으면서도 일부러 작명소까지 찾아가 좋은 이름을 지어줄 만큼 작명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여·9개월)에도 한전 식구들이 지어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아름답게 자란’이라는 뜻이다.

이밖에 한전 사회봉사단은 2004

년 자선의 밤을 주최해 893만1천 320원을 전달했다. 이번에도 놀이터와 함께 100만원상당의 기저귀와 기저귀 커버를 기증했다.

영아일시보호소의 김재영 원장(47)은 “단발성 후원이 아닌 꾸준한 후원과 관심으로 아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어워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회봉사단의 리더 김학재 과장(42)은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도 봉사활동이 퍼져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 단신****전남사회복지모금회 산오름 행사**

○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남장애인시설협회(대표 나종학)와 공동으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동안 구례 화엄사와 성삼재 노고단에서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동행, 장애우 산오름’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내 10개 시설에서 6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게 된다.

**도우미 필요 장애인 유권자 신청**

○ 2006 광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22일까지 장애인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차량 및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모집한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거동이 불편해

투표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1,2급 장애인들과 노인들은 투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과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062-513-1080, www.gj21.or.kr

**이해인 수녀 초청 피정**

○ 광주평화방송(사장 송종의 신부)은 이해인 수녀와 함께하는 ‘지붕 위에서 외쳐라-광주 평화방송 후원회원을 위한 피정’을 가진다.

이번 피정은 ‘시와 노래 그리고 이야기 있는 5월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22일 오전 10시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3일 오전 10시 순천 연향동 성당 등 2곳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후원회원 5천원, 비회원은 1만원. 문의 062-231-7730, 7709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 설명회**

○ 광주지방 노동청과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광주지사가 오는 23일 오후 2시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다목적실에서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전남지역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변경내용 ▲기업맞춤교육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문의 062-511-1983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종교칼럼**

윤빈호

사람들은 21세기를 ‘세계화의 시대’라고 부른다. 갈수록 다변하고 다원화되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세계화(Globalization)를 실감한다.

이런 세계화를 실감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곁에서 만나는 외국인이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74만 7467명.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비율도 높아져 작년 한해 우리나라 전체 결혼 건수의 13%인 4만 3121건이 국제결혼이었다.

이주 노동자는 대부분 3D직종 즉, 어렵고(Difficult), 위험하고(Dangerous), 더러운 일(Dirty)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의 인권은 땅에 떨어져 있다. 산업의 현장에서 당하는 고통과 억압은 그들에게 “때리자 마세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외침을 토해내게 했다.

더욱이 이주 여성 노동자나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노동착취는 물론 성매매, 성폭력과 같은 학대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인=외래인(外來人)?**

한마디로 이 땅에서 외국인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외래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외국인이 외래인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아메리칸 드립을 꿈꾸던 시절이 땅에서 외국인,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런 백인 선호사상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은 외래인 취급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래인 취급을 받는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들이 말로 한국의 노동자와 엄마 그리고 아내로 살아가는 진정한 한국인이 아닐까.

우리들이 화이트 칼라를 선호할 때 우리를 대신해 기꺼이 블루칼라를 입은 그들,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을 때 우리 미래를 위해 자녀를 낳아주는 그들, 그들이 왜 외래인이 되어야 하는가.

곡성성당은 3년 전부터 ‘외국인을 위한 한글문화 학당’을 운영해오고 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따뜻함들이 더 많이 모이고 쌓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천국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세계화가 아닐까.

(전주교곡성본당 주임신부)